



END THE AGE OF PLASTIC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그린피스 미디어 브리핑 자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란?

-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는 결의안이 승인됐다. 이후 이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5차례에 걸쳐 진행되기로 합의되었다. 2024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는 다섯차례 협상 중 네 번째 회의다. 마지막 제5차 회의(INC5)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INC4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INC4 회의 전 그린피스 담당자 코멘트:

-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제 5차 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량을 2040년까지 최소 75%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업계가 이번 회의를 좌지우지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매우 중요한 기회다. 최근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시민의 81.8%가 협약에 생산감축 포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의 소속 국가이며, 마지막 협상 회의(INC5) 개최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요구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40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 1) 플라스틱 생애주기(생산부터 폐기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 플라스틱은 추출, 생산, 운반, 소각, 투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유원료를 통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 이를 판매하는 유통의 단계,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 2)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 감축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미국의 환경단체 [Pacific Environment](#) 연구에 따르면¹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46~7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플라스틱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영향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은 우리가 계속 화석연료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향후 10~15년 안에 두 배, 2050년까지 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
- 3)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해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의 사용 규모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소재를 모두 고려해, 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특정 플라스틱 소재를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은 가능한 한 플라스틱 제품 및 소재를 그룹 별로 규제해, 잘못된 대체물과 불필요한 생산을 방지해야 한다.
- 4) 저탄소, 제로웨이스트, 재사용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생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고, 폐기물 수거인 등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우선순위를 두어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은 재사용 및 리필 모델을 지원하고, 원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전통 지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 5) 불평등을 줄이고 인류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에 뿌리를 댄다.
생산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오염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불공정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협약은 정의와 인권을 기반으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논의 내용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3) 회의는 좌절 속에 막을 내렸다. 협약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의 국가들이 협상을 방해하면서 협약의 1차 초안문을 작성하지 못한 채 나이로비를 떠났다. 몇 가지 진전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협상을 방해한 몇 국가들이 INC 사무국이 협약문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zero draft) 수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각국 대표단은 INC4에서는 협약문 1차 초안 대신 INC3와 INC4 사이 수정된 제로드래프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¹미국의 환경단체 [Pacific Environment](#) 연구에 따르면 1.5도 경로에 부합하려면 플라스틱 생산량을 BAU 수준 대비 최소 75% 감축해야 한다.

²글로벌 컨설팅사 [Eunomia](#)는 2050년까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75%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린피스는 이 수정된 드래프트에 더 많은 부적절한 선택지가 포함되어 문서만 방대하졌다고 평가했다.)

- **INC3**에서는 **INC2**에 비해 진전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대표단은 협약의 주요 통제 조치와 이행 방안에 대한 실질적 입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사용은 미국처럼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였다.
- 하지만 수정된 제로드래프트의 일부 옵션은 협약의 성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다루는 조항을 삭제하는 옵션이 여기 해당한다.
- 핵심적인 옵션들 또한 여전히 초안에서 다뤄지고 있다(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에 대한 통제, 감축 및 재사용 목표, 문제성 제품 및 회피할 수 있는 제품의 금지 등)
-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및 이행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과 적극적인 국가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논의 예정 내용

- 협약의 통제 조치(협약의 과업)와 이행 수단(이러한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 그리고 어떤 원칙을 포함할지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 조치와 이행 수단을 포함해 협약의 본질에 대한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폐막한 유엔환경총회(UNEA6)에서 이 같은 논쟁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몇 국가들이 결의안과 선언문에서 플라스틱의 전 수명주기와 플라스틱이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린피스의 INC4 목표

-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에 관한 글로벌 목표를 규정하는 옵션이 협약문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간 뒤,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서 미온적인 국가들에게 양보를 할 위험이 있다.
- 감축, 재사용, 리필을 위한 목표가 협약문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협약문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정된 제로드래프트에서 많은 옵션들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린피스는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문서를 회의장 배포 문서(Conference Room Papers, CRPs) 등의 형식으로 회의 기간에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 그린피스는 협약문 첫 번째 초안을 준비할 권한을 의장이 갖게 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국가 입장

- **적극적인 국가들 (Higher ambition countries)** : 플라스틱 생산 및 문제성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 인권 중심의 접근법 포함, 플라스틱 내 독성 화학물질 감축/퇴출을 지지. 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 노르웨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르완다 및 기타 아프리카 그룹 회원국, 페루 등
- **미온적인 국가들(Lower ambition countries)**: 플라스틱 생산의 영향을 무시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양 쓰레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협약보다는 국가의 행동 계획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길 바람. 예: 한국, 일본 등
 - 이 그룹 내 일부 국가(예: 브라질)는 협상을 진전시키고 화학물질 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INC2에서는 협상 진전을 지연시키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 이 국가들 중 일부는 우호국연합(HAC)의 회원 국가임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방해(할 수 있는) 국가**: 석유화학 국가/산유국.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거짓 해결책을 내밀면서 현상 유지를 꾀함. 예: 사우디아라비아
-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개발도상국

한국 정부 입장 및 그린피스 평가

- 한국은 우호국연합(HAC)에 속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전 INC에 [한국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와 [입장 발표](#)를 살펴보면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국가의 행동 계획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재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의 한계](#)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미루어 볼 때 강경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한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5차 회의를 한국 부산에서 2024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우호국연합(HAC)의 회원국이자, 5차 회의 개최 희망국인 만큼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2040년까지 75%이상)와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환 목표가 협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불어 협약 체결 전 국내 정책 및 국민 인식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참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한국인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한다”

- 국민 대다수(81.8%) 플라스틱 오염 해결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하다고 답해
- 그린피스 “한국 정부, 특정 산업군 아닌 시민 요구 대변하는 협약 체결 해야”

(2024.04.05) 대다수 시민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포함 총 19개국 1만 9천여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³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오는 4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를 앞두고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의장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77.2%) 응답률을 상회한다. 전체 응답자가 동의한 비율(82%)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 시민의 85%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및 리필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산유국 등 방해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플라스틱 생산이 주 수익원인 석유 화학 업계는 협상 회의에 로비스트를 보내는 등 협약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를 펼쳐왔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⁴\)](#)의 소속이자, 올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특정 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으며,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 번째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방해 하면서 협약 초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참고] 기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브리핑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³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세계 시민 인식 조사는 총 19개국의 19,000명 이상의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조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26일 진행되었다. 한국인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⁴ High Ambition Coalition

-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그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 한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인프라 투자 및 이에 따라 예측되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로, **2060년**이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3 Gt CO₂e**로 지금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특정 역사적 기준점 수준으로 즉시 제한하고, 해마다 생산량을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촉구한 것처럼, 플라스틱 협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신재(**virgin production**) 생산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플라스틱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도,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 및 리필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관련 종사자들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고통받는 커뮤니티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 플라스틱은(**recycled plastic**) 유해하고 진정한 순환경제를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재활용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린피스에서 지난 3월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국내 전체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였으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했다. **2017년** 조사 대비 재활용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2017년**보다 **49.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다. 전세계 재활용률은 약**9%**정도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재활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소 및 일회용 플라스틱 유통, 사용 감축 및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 우리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플라스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기업의 인프라를 해체하고, 대형 브랜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기반 체제를 다회용기반으로 변화 할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종사자나 피해 지역사회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산업계는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약화시키려는 로비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산업계 주장과 로비는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 지구와 우리 삶에 끼치는 해에 집중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창출에만 있는 듯 보인다.

석유 화학 기업이 받을 영향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된다면 석유 화학 기업의 인프라를 해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 접근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플라스틱이 기후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조 될 것이다. **99%**가 화석연료로 생성되는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기업의 연관성 그리고 이들이 야기하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이제 석유화학 기업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소비재 기업이 받을 영향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기업들이 플라스틱과 기후에 대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공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제품을 생산, 소비 및 폐기할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해결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현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네슬레와 유니레버를 포함한 **70개** 이상 기업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요구했다.

반면 석유 화학 기업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약화하기 위한 내용에 주력하고 있다. 전미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이하 ACC)는 UNEA 절차를 2년동안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플라스틱 문제를 ‘해양 쓰레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 국가적 차원이 아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오염이자 위기다. 플라스틱 공급망은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고, 오염은 폐기물 거래와 해류를 타고 국경을 넘나든다. 거대 석유 화학 기업과 대형 브랜드가 수익을 거두는 동안 원주민, 지역 공동체, 개발도상국은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기후 및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현재 플라스틱을 다루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적인 오염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

